



●● 서승진 산림청장 산림복구현장 방문

서승진 산림청장은 10일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와 봉산리를 방문, 산림복구현장을 둘러 보고 완벽한 복구와 피해 재발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한·중 양국간 황사 및 사막화 방지 협력 합의

산림청과 중국 국가임업국(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賈治邦)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 사막에 사막화 방지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아지방(賈治邦) 중국 국가임업국장은 4월12일 산림청장을 예방하고 그 동안 쌓아온 양국간 산림분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양국간 산림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산림경관복원 IUFRO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승진 산림청장은 14일 산림경관복원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림경관복원 IUFRO 국제학술대회' 참석. 인사말에서

"IUFRO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학회를 통해 산림경관 복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파악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제23차 IUFRO 세계총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10년 동안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ha에 이르는 몽골 황사 발원지 사막에 나무를 심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산림청 주관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북독한 산에서 에르덴바타르(Erdenebaatar) 몽골 자연환경부장관 등 몽골 정부관계자와 박홍수 농림부장관,



서승진 산림청장 등 한국 정부관계자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사막화방지기구(UNCCD) 등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한 현지 한국교민, 주몽골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착수를 알리는 기념식수와 거리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 ●● 제1차 한-러 산림협력회의

산림청은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서승진 산림청장과 러시아 연방 발레리 로슈푸킨 산림청장을 수석대표로 ‘제1차 한-러시아 산림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한-러시아 산림협력회의는 1992년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산림분야의 협력관계가 복원된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열게될 한-러시아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논의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연구기관, 학계, 민간업체 등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